

오픈 소스만 파는 스타트업 이야기

제5회 공개SW 데이

**DEVIEW
2013**



개발자로 살아가기!
개발자로 살아남는 법!
엔지니어로 살아가는 법!

문제는 처자식

-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남아?
- 기술은 넘쳐나는 데 나는 뭐하지?
- 공부는 대체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걸까?
- 어떤 것이 최선의 방법일까?



다루는 주제

- 오픈 소스 개발하는 방법 없음 – 잘 가져다 쓰는 것도 기술, 이후 세션에서 많이 다룸
- 개발자, 엔지니어 그리고 현재
- 오픈 소스 개발도 중요하지만 전파도 중요하다.
- 개발자로만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을 심지 않음
- 오픈 소스만 가지고도 벌어먹는 회사도 있다.

여러분들의 소속?

- 학생
- 프리랜서? – 그냥 계약직
- SI 회사
- 솔루션 회사
- 벤더



여러분들의 역할은?

- SI 기술자?
- 소프트웨어 기술자?
- 시스템 기술자?



Life of a Software Engineer !!

UNIX

C,C++

JAVA

.Net

MS EXCEL :- (



1st Yr.

2nd Yr.

3rd Yr.

Last Yr.

Rest Of Life

커뮤니티/SNS에서는 온통



개 같은 내 인생~



- 책상에 앉아 뚝뚝한 머리를 써서 컴퓨터라는 것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를 척척 해결하는 멋있는 행위?



이미지 출처: <http://mirror.enha.kr/wiki/%ED%94%84%EB%A1%9C%EA%B7%B8%EB%9E%98%EB%A8%B8>

대체 개발자의 의미는?

- SI개발자는 뭐고 SW개발자는 뭐고
- SI개발자, SW개발자, SW엔지니어. 그 미묘한 차이



[이미지 출처: sejin90.tistory.com](http://sejin90.tistory.com)

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

- SI: 업무용 소프트웨어만 개발
- 가치가 아닌 경력대비 단가 기준으로만 산정
- 비용이 높은 고경력자를 꺼림
- 스타트업을 통한 일반 사용자용 소프트웨어 개발 도전

스스로의 한계 지정: “난 한 놈만 패~”

- 사용 기술 이외에 다른 기술 관심없음
- 트렌드 기술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음
- 교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음
- 자바와 스프링만 죽어라 팜. 요즘은 파이썬, 루비, Erlang 등
- 다른 건 모름 - 리눅스, 미들웨어, 다양한 오픈 소스
- 클라우드, 빅데이터? 더 모름
- 아키텍처 그리기? - 꿈도 못꿈

다양한 삶의 테크 트리가 존재

- 많은 사람들이 개발로 시작하여 개발로 끝나야 한다는 생각
- 야근, 박봉, 그리고 40대 통닭집 – 3D



시선을 조금만 돌리면

- 상당히 많은 종족이 우리 IT세계에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음
- 그 종족은 개발을 주로 하며, 큰 그림을 보는 집단임

● A 유형 – 결혼 전 해 볼만 함

- 난 남들과 달라 –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고 싶음
- 내 아이디어는 대박 날꺼야 – 일반 사용자용 애플리케이션(not 기업용)
- 둘 중 하나 – 대박(귀족) or 쪽박(다시 평민)

● B 유형 – 안전빵

- 남들과 같이 가되 조금 더 열심히 하여 두 세 걸음 먼저 가겠음
- 엄청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거야
- 둘 중 하나 – 분야 리더 or 자기 사업

Developer? Engineer?

Salary by Titl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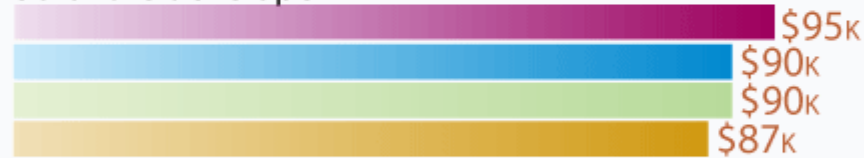
Median annual base salary

2013 2012 2011 2010

QA/software test engineer/analyst



Software developer



Software engineer



Software Developer

<http://www.drdobbs.com/architecture-and-design/2013-developer-salary-survey/240163580?pgno=2>

glassdoo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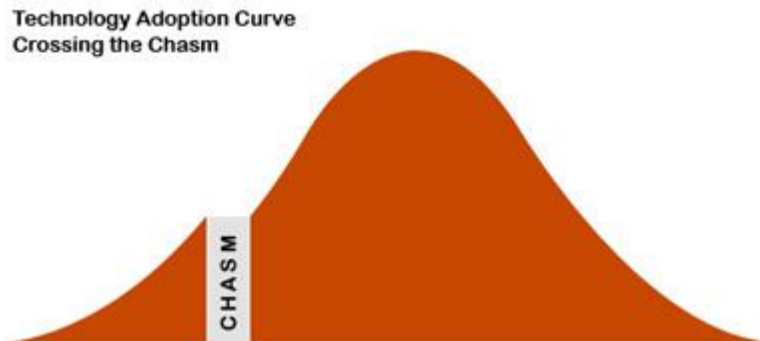
25 HIGHEST PAYING COMPANIES FOR SOFTWARE ENGINEERS 2013

RANK	COMPANY	AVERAGE BASE SALARY
1	JUNIPER NETWORKS	\$159,990
2	LinkedIn	\$136,427
3	YAHOO!	\$130,312
4	Google	\$127,143
5	Twitter	\$124,863
6	Apple	\$124,630
7	ORACLE	\$122,905
8	Walmart	\$122,110
9	Facebook	\$121,507
10	Integral	\$117,927
11	ARISTA	\$116,067
12	NVIDIA	\$115,649
13	ebay	\$114,720
14	amazon	\$110,907

Software Engineer

엔지니어에 의미를 둬

- 기초의 중요성 - Java SE, Java EE의 대부분 스펙을 모두 읽어 봄(with 영어)
- 응용의 중요성 - 톰캣의 소스를 다 까봄, 무조건 궁금하면 까 봄
- 기술 습득의 중요성 - 커뮤니티, 고수(멘토)들을 찾아다님
- 공유의 중요성 - 커뮤니티를 통해 나 자신을 알림(거품 발생 금지)
- 이후 원하는 것을 구현하기 보다는 기존의 것을 묶고 불편한 부분을 구현하여 보강
- 캐즘 뛰어넘기 - 매트릭스 Neo?, 쿵푸 펜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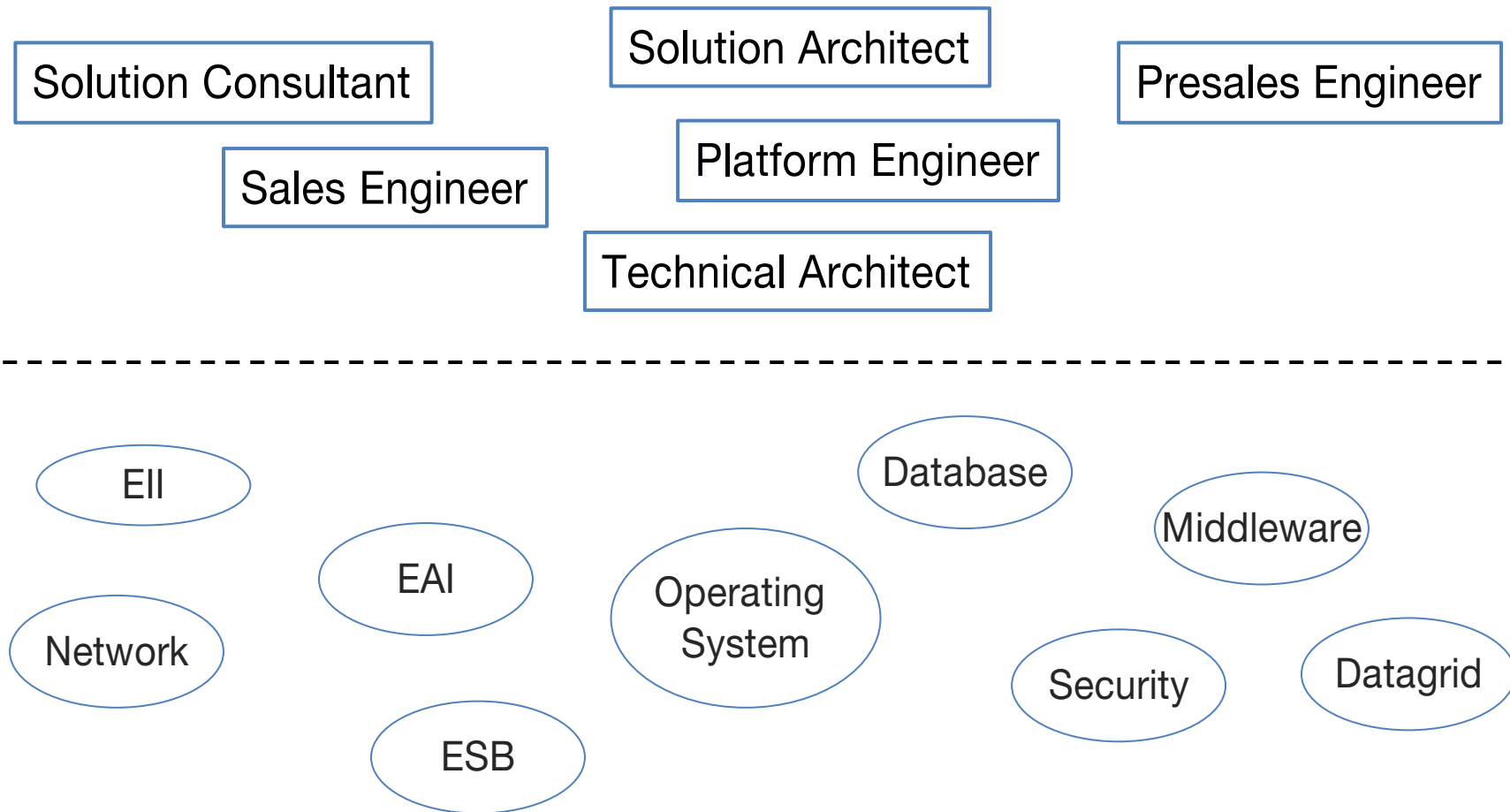


엔지니어 테크 트리의 장점은

- 프리(계약직)는 포기한다
- 개발하면서 소스도 파고 원리도 깨우쳤다.
- 다양한 솔루션으로부터 최고의 성능을 얻는다.
- 오픈 소스 개발부터 운영 관련된 전략까지 짜고 있다.
- 다른 시스템도 유기적으로 연동하고 싶다.
- TA, AA도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의 영역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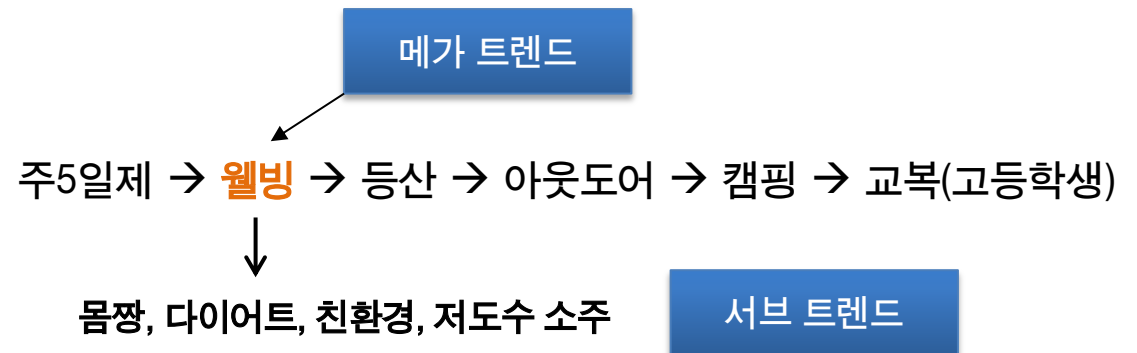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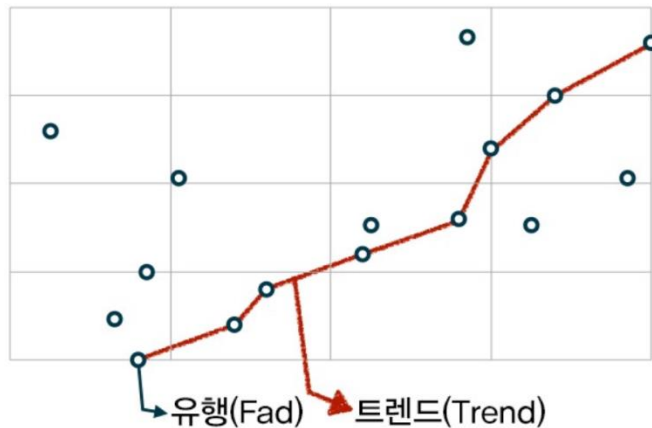
운 + 실력이 결합되어야~

- 세상에 수많은 종족이 있는 것처럼 이 세계에도 많은 종족이 살고 있다.
- 기존의 상용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많음 – 대부분 벤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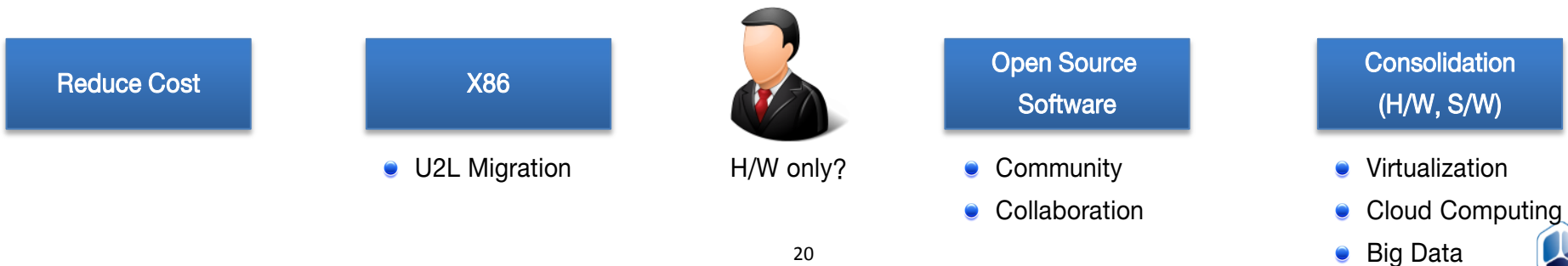


3년간의 준비

- 트렌드(Trend): 기존과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식 등의 변화, **지속적**
- 유행(Fad):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추종을 받아 널리 퍼짐, **단발적**



IT를 보니 오픈 소스가 메가 트렌드였어



1B 유니콘 클럽 공통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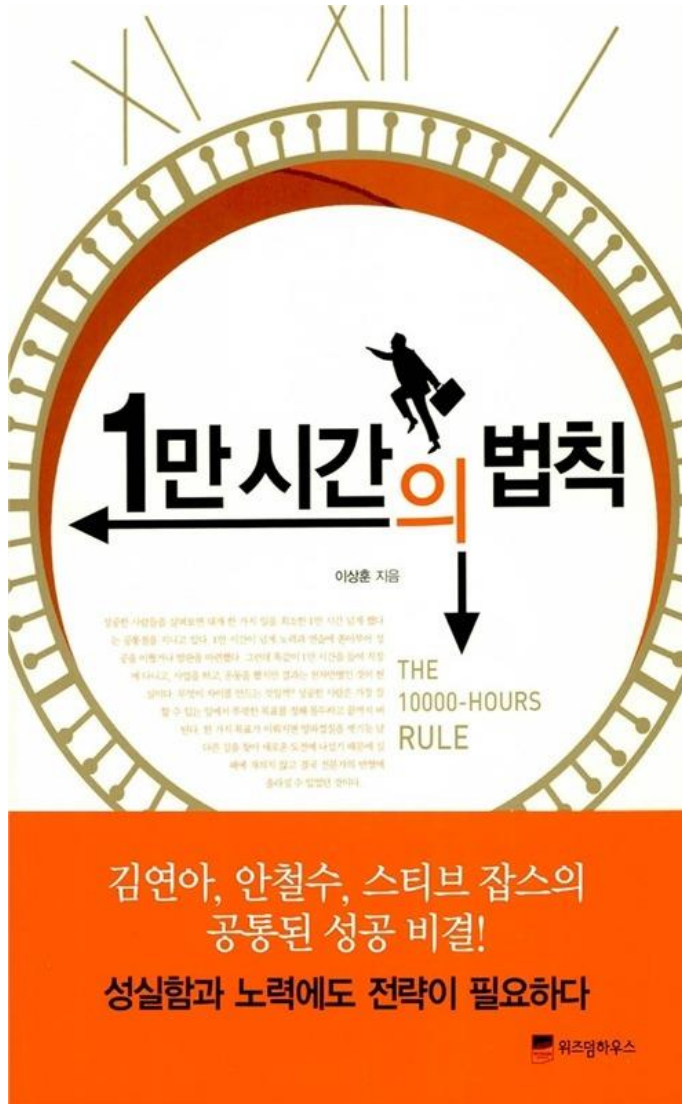
1. 2003년 부터 10년간 39개의 유니콘 클럽회사가 탄생했으며 이는 벤처투자를 받은 회사중에 0.07%에 해당한다. (1538개 중에 1개)
2. 평균적으로 매년 4개의 유니콘 클럽 회사가 탄생하며 10년에 1-3개 꼴로 슈퍼 유니콘(\$100B 이상)이 탄생한다. - 슈퍼유니콘이 탄생할 때는 기술적으로 큰 변화들이 있는 시기였다. (반도체, 개인용컴퓨터, 네트워크, 인터넷, 소셜네트워크)
3. B2C 회사들의 가치 총합이 페이스북을 제외해도 B2B회사 가치의 총합보다 컸다.
4. 하지만 B2B 기업의 평균 기업가치는 더 컸고 투자대비 수익률도 더 높았다.
5. 모든 기업의 4개의 수익 모델중 하나에 속했다. - **B2C 커머스, B2C 유저기반 , SaaS, 기업용 소프트웨어**
6. 엑신타할때 까지 평균 7년이상 걸렸고, 아직도 1/3은 엑신타를 안했다.
7. 경험없는 20대의 창업가가 유니콘클럽이되는경우는 극히 예외적이고, 보통 고학력의 몇년간 같이 일했거나 같은 학교를 다닌 경험에있는 30대가 창업한 것이 대부분이었다.(평균창업 나이는 만 34세) , 80% 이상의 회사가 이미 회사를 창업해본 공동창업자를 가지고있었다. 스탠포드, 하버드, 버클리, MIT 출신이 매우 많음.
8. 큰 Pivot(방향수정)을 하고 성공하는 것도 아웃라이어 적인 케이스다. - Pivot으로 성공한 경우는 전부 B2C 뿐.
9. SF와 Silicon Valley의 회사가 대부분이다. (39개중에 27개)
10. 대부분의 창업가들이 유사한 점(여자가 거의 없고, 미국 top 10 학교 출신)을 가지고 있다.

틈새: 트렌드는 있으나 기술을 가이드해 줄 회사가 없다.



HYPERTABLE





결심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이는 많지 않다. 더구나 오랜 기간 실천을 계속하는 사람은 더 적다. 성공을 향한 '시동'을 **결심**으로 걸었다면 **실천**이라는 '기어'를 넣고 **지속**이라는 '연료'를 넣어야 목적지에 이름

그 분야의 극강이 되라

● 생각은

"늑대는 떼를 지어 다니지만, 강인한 호랑이는 떼를 지어 다니지 않는다"



● 현실은

"강인한 호랑이도 혼자 다니다 보니 오늘날 멸종 위기에 처해 있더라" – 같이 다녀야지



인맥 - 한 다리 건너면 다 안다.

- 1:250 법칙(조 지라드)을 중시
 - 1인당 평균 250여명의 관계
 - 한 다리 건너면 62,500명
 - 두 다리 건너면 15,625,000명 – 국민의 25%가 나를 알 수 있다.

人間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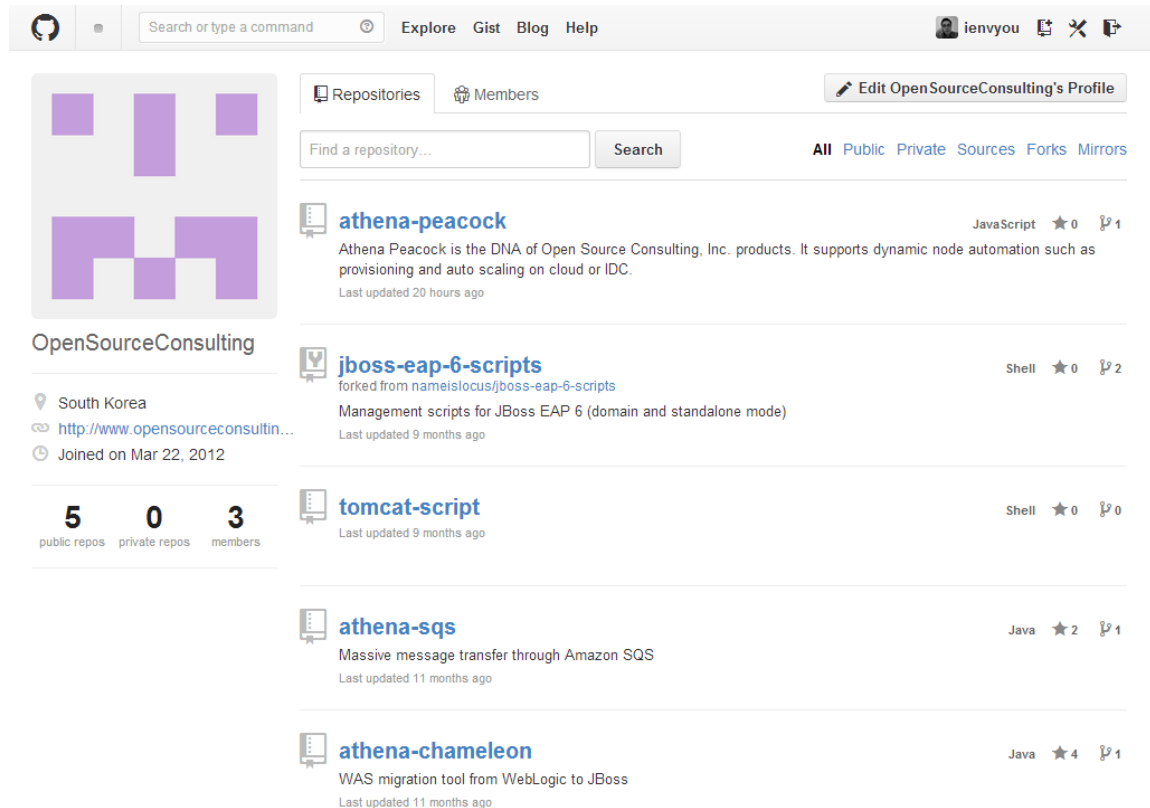
+ 아부(관리자, 고객)

- 때로는 손 비비는 것도 필요



그래서 지금

- 많은 국내 No.1 기업의 오픈 소스 전략 파트너
- 해외 솔루션 전문 컨설팅 파트너 – Amazon, MariaDB, Zabbix, JBoss, Apache, Tomcat, Linux
- 잉여를 통한 순환 솔루션 – Athena Chameleon, Peacock, Dolly



The screenshot shows the GitHub profile of OpenSourceConsulting, Inc. The profile includes a repository list with the following details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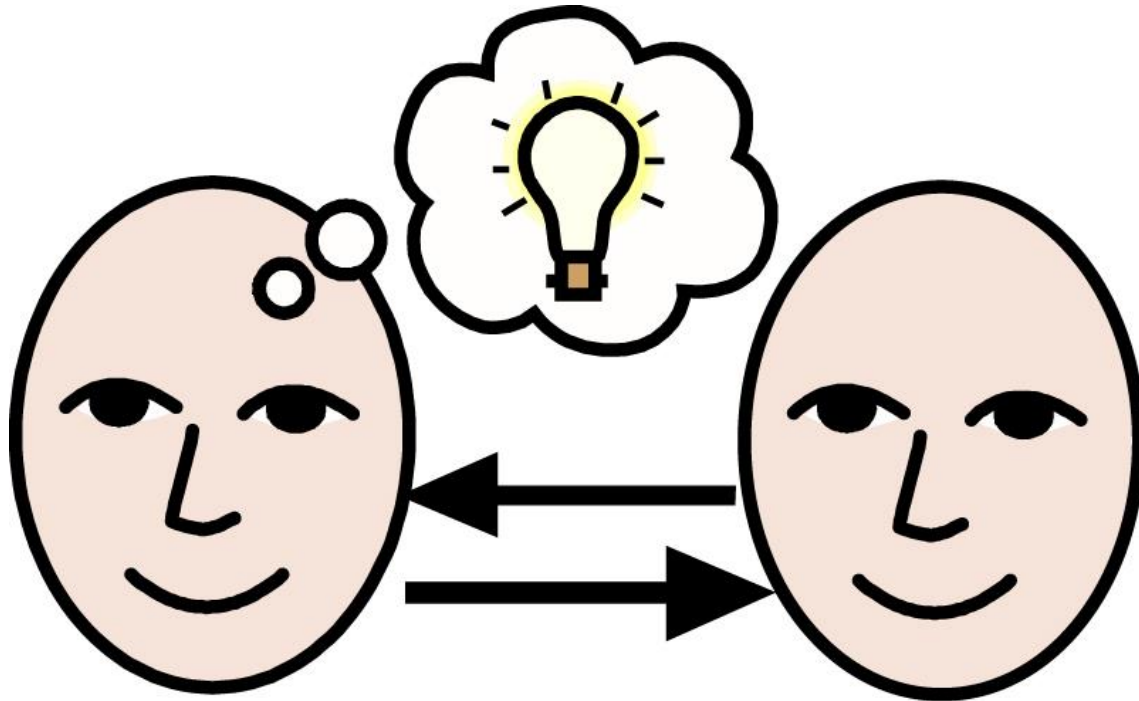
Repository Name	Language	Stars	Forks	Last Updated
athena-peacock	JavaScript	0	1	20 hours ago
jboss-eap-6-scripts	Shell	0	2	9 months ago
tomcat-script	Shell	0	0	9 months ago
athena-sqs	Java	2	1	11 months ago
athena-chameleon	Java	4	1	11 months ago

Profile Summary:

- Repositories: 5 (public), 0 (private), 3 members
- Location: South Korea
- Website: <http://www.opensourceconsulting.com>
- Joined: Mar 22, 2012

어떻게 1 - 내가 가진 기술 공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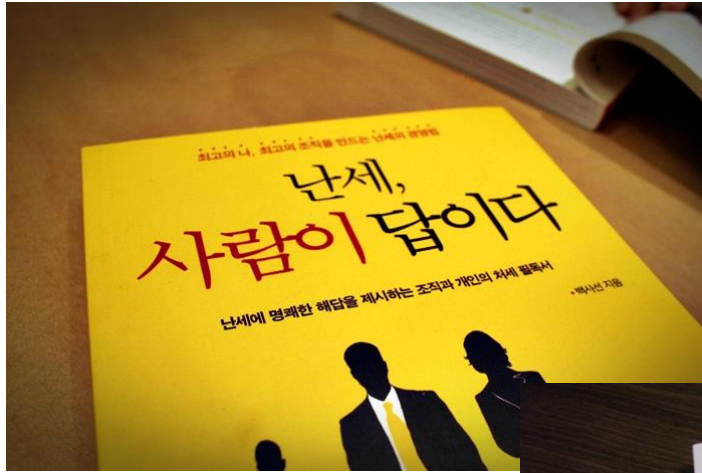
- 공유를 통한 자기 성장이 이루어진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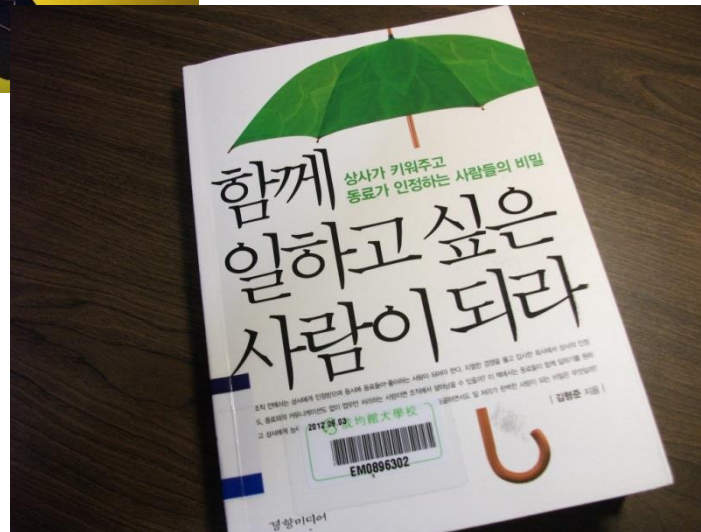
이미지출처: www.pricerfinder.com.au

어떻게 2 – 사람이 재산이다

- 사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



사람이 희망이다.



●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 지 보자

- IoE
- BitCoin
- Instance Chat
- Cloud + Big Data
- Integrated Hardware



어떻게 4 - 대인배 되기

- 배 아파 하지 않는다. 왜 그렇게 되었나 확인한다.



어떻게 5 – No할 때는 확실하게

- Yes만 한다고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는다.



OPEN
SHARE
CONTRIBUTE
ADOPT
REUSE